

"2070년 지구온난화 난민 3억
넘을 것"
파비엔 구보디망
세계미래학회 회장



▲ 파비엔 구보디망 회장. ©

미래학은 왜 필요한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리더가 내리는 정책결정은 해당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유엔미래포럼(박영숙 대표)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한 파비엔 구보디망(Fabienne Goux-Baudiment) 세계미래학회(WFSF) 회장은 서강대 마테오관에서 마련된 '초청강연-미래예측 방법론' 강연에서 미래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대표적인 여성 미래학자로 존 나이스비트, SF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오딧세이' 저자 아서 클라크가 소속된 세계미래학회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는 구보디망 회장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국가와 기업의 미래예측 연구는 필수"라며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미래연구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출신인 그녀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미래학 연구는 "수학이나 통계학 등 수학적 과학에서부터 인문학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점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구보디망 회장은 "수학과 통계학은 2~3년, 또는 7~8년 내에 올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20년, 5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수학적 과학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그래서 역사,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문학 속에서 수학을 찾으려는 '사회과학 속의 수학(mathematics in social sciences)'이 미래학 연구에 중요한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미래학은 2차대전 후 도시건설에서부터"

구보디망 회장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지향하는 미래학은 좀 다르다. 미국의 미래학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탐색적 미래(exploratory future)'에 집중하는 반면, 프랑스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의 미래학은 2차대전 후부터 시작됐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새로 설계하는 게 유럽 미래학의 출발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올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보디망 회장은 "그러한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다"며 "프랑스의 미래학도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라는 현실 위에 앞으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보디망 회장은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창 씩씩하게 자라고 한창 꽃 필 나이에 시들어 가는 것 같다"며 "아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어항 속의 금붕어와 다를 바가 없고, 희망과 자기 확신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구온난화는 지구촌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온난화문제는 첨단 과학이나 기술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사회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느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 지구촌의 협력을 요하는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이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난화 난민'도 생긴다. 해수면의 상승과 사막화로 농작할 땅이 없어진다. 그들은 농작할 땅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된다. 구보디망 회장은 그런 난민이 "2050년에는 2억1천만 명, 2070년에는 3억 명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난민은 세계 곳곳으로 이동해 정치, 경제,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난민을 막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또 인구의 증가로 난민은 더욱 더 증가한다. 이들은 AIDS, 말라리아도 갖고 이동한다.

"알츠하이머와 암이 가장 심각한 질병"

구보디망은 60년 후 인간의 평균수명은 120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분 좋아할 것만도 아니다. 알츠하이머와 암이 급속히 증가한다. 노인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나 암에 걸린다. 수명이 늘어나지만 이러한 병과 싸우면서 지내야 한다. 이 두 가지 병에 대한 치료약은 조만간 개발되기 어렵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3~4번의 결혼은 기본이다. 그래서 한 번은 아시아 사람과, 다시 유럽이나 미국 사람과, 그리고 아랍이나 남아메리카 배우자와 결혼하는 다국적 결혼시대가 온다. 단절을 뜻하는 늙음(old)은 80세부터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구보디망 회장은 프랑스에서 정치학, 경제정책 및 분석을 공부하고 로마로 건너가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미래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민간 컨설팅 기업인 프로젝티브(www.proGective.com)를 설립, 각국의 정부를 비롯해 기업의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 미래학자들과 같이한 주요 인사들. ©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hanmail.net